

미국에 대한 사무친 증오가 활화산처럼 타오른다

《대국》이나, 소국이나

우리의 정당한 로케트발사를 두고 화들짝 놀라 부산을 퍼워대는 미국의 물결이 가 판이다.

방어용로케트를 몇발 쏜 것인데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고 떠드는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수 없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 미사일발사국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리는 대규모전쟁연습에 투입한 핵잠수함, 구축함 등에 실려있는 미사일들보다도 그 종류와 수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런 미국이 우리가 단지 로케트 몇발을 쏘았다고 허둥대는것은 《대국》의 체모에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좁스러운 행동이다.

지금껏 미국은 《초대국》이랍시고 으시대며 세계의 《경찰관》노릇도 하고 《인권재판관》노릇도 해왔다. 국제무대에서 무엇이러지면 제가 행성의 주인인

듯이 무력을 과견한다. 중재에 나선다하며 꽤나 위세를 뽐내고 전횡을 부려왔다. 그러나 그 《초대국》의가면을 한번 벗겨보면 미국은 형편없는 소국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더우기 그러하다. 오죽하면 세상사람들이 《미국이 조선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며 야유조소하였겠는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대규모북침불장난소동을 벌리면서 《방어를 위한 연습》을 한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제 집앞에서도 아니고 태평양을 건너와 남의 집문앞에서 사방 불을 놓으며 미쳐돌아가는데도 《방어연습》?

미국이란 원래 그런 나라이다.

가. 이번 로케트발사를 놓고 미국이 벌리는 추태를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렇게도 무서우면 아예 싸움하기를 포기하고 우리와 화평하는 길을 택하든지,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제나라로 돌아가든지.

미국에 한마디 충고하고싶다. 진짜 《대국》이라면 자질구레하게 놀지 말고 좀 크게 놀라.

김영직사범대학 학부장 윤동일

이라크를 무력으로 타고갔으면서도 있지도 않는 《대량살륙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아프가니스탄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면서도 레오위엄으로부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너스레를 떨었이 미국이 아닌가.

인디안의 시체우에 나라를세운 조상들로부터 배운것이 그런것이어서 침략과 방화를

식은죽 먹기로 여기고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과립치한 강도배가 미국이다.

《방어연습》을 한다는 미국인데 우리도 미국앞마당에

막말장사군이 국무장관이라니

미국무장관 케리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폐쇄적인 나라》, 《악의 나라》로비방했다고 한다.

사고수준이 령에 가까운 천치가 아닌지 모르겠다.

까마귀가 까치고도 겁다한다더니 도대체 케리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알면 얼마나 알기에 이따위 허튼 나발을 마구 내뿜는가.

해방전 사람값에도 들지 못했던 우리 농민들을 어엿한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농협고도보람찬 새 삶을 누리도록 해준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오늘도 공화국은 땅을 다루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근로자들이 제일이라고 새해

서 방어용이라고 하며 군사연습을 한다면 그들이 과연 납득할수 있을가.

평양시 평천구역 김영철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

우리의 첫 국가적행사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성대히 열도록 해주고 온갖 온정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있다.

어리석고 부실한 미국

우리의 공화국에서는 미국의 이전 대통령 부위를 풍자한 만담이 오래전부터 전해지며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대통령의 품격은 고사하고 앞뒤도 가리지 못하고 마구 말하고 헐뜯히는 부위를 해학적으로 조소한 만담은 어리석은 미국을 풍자하며 듣는 사람마다 폭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있다.

하고 부실해서 이름도 부쉬라고 달았다고 했던지... 그 부쉬가 얼마전 서울에

그런데 명백히 미국무장관이 라는자가 공화국사회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력과 리성도 없이 놓고있으니 《초대국》이라는 미국도 금새를알만 하다.

공알은 백년 굴러도 수박이 될수 없다고 남을 걸고들며 못되게 노는 미국을 두엄더미에 처박아야 할것이다.

황해북도 곡산군 덕흥협동농장 분조장 리철진

기어들어 또 우리 인민의 조통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중에 죄짓고 도망간 배신자, 인간추물들을 만나주며 《영웅》이라 취주었으니 말이다.

통개의 눈에는 뭐만 보이고 다리부러진 노루 한쌍에모인다는 조선속담그대로이다. 역시 부실한 부쉬이다.

이런자가 대통령까지 했으니 미국에 인물이 없진 없는 모양이다.

《방어》의 탈을 쓴 북침불장난소동

려놓고있다.

아마 그 어떤 나라가 저들의 문앞에 와서 대규모군사훈련을 하면서 방어를 위한것이라고 한다면 남측은커녕 당장 야단났다고 헐뜯을것이다.

방어라는 개념이 포괄하고있는 내용면에서도 그렇다. 방어는 력량상 우세한 적을 쳐물리치고 그에 큰 손실을 주며 차지한 진지나 계선을 완강히 지켜내어 차후 공격전으로 넘어가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게 한다.

훈련방식도 특정국가를 《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군사교류나 작전협동체계를 다지는 훈련과 병중, 군종별훈련 그리고 해상구조와 재난구조훈련같은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해마다 남조선에서 웅근 한계 전쟁도치르고남을 수습만의 룩,

해, 공군병력과 최신전장장비들을 동원하여 온 한해를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 전쟁연습으로 보내다싶이 하고있으며 그 내용 역시 상륙작전과 수도점령을 노린 불의적인 기습타격, 기동훈련 등 철저한 공격연습으로 일관하고있다.

미국은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자주 거들며 이에 대한 《방어》를 운운하는데 이것 또한 사리에 맞지 않는다.

구래여 말한다면 미국은 지난 기간 본토에 대한 침략을 받아본 일이 없다. 오히려 그 누구의 《대량살상 무기위협》과 《핵위협》, 《인권침해》를 떠들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실밑에 해당 나라들의 코앞에서 대규모군사훈련을 벌리다가 불의에 공격으로 넘어가 저들의 침략적목적

하기야 미국에선 돈만 있으면 개들도 주지사선거에나가고 대통령후보로도 될수 있다니 더 말해 무얼하겠는가.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산송

선군조선의 역센무쇠주먹으로

미국이 북침전쟁에 환장을해도 단단히 했다.

어제는 《독수리》훈련의미명하에 핵잠수함을 끌어들이더니 오늘은 공격형첩단미사일을 장비한 이지스순양함이니, 구축함이니 하는것들을 4척이나 조선반도의 동서남해에 끌어들이었으니 말이다.

미국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고 고야대는 《독수리》연습이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은 이것만 보아도 명백하다.

세상에 날고기 안먹는 승냥이는 없었다고 했다.

미국이 야말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은 덮어

장 부위까지 반공화국도발에나선것을 보면 미국이 솟구치는 조선의 기상에 열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가지 않은것 같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최순실

놓고 힘으로 억누르고 강점하려고 날뛰는 침략국가이고악의 제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공화국을 잘못 봐도 함참 잘못 봤다. 바다에서 쳐들어오면 바다에 수장해버리고 공중에서 달려들면 공중에서 박산내며 지상에서 달려들면 지상에서 멸적의 불로화로시체도 건지지 못하게 하는것이 우리 군대의 기질이다.

아무래도건 덤벼만 들라. 그러면 선군조선의 이 무쇠주먹으로 미국의 사들배를분질러놓을것이다.

황해북도 송림시 전성로병 김창호

침략전쟁연습을 합리화하기 위한 꾀변으로서 세계여론에 대한 기만과 우롱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이고 라민족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해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미국식강도론리가 통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날 미국의 기만적인 《방어》타령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방어》의 간판밑에 진행되는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을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침략자들이 달려들면 씨도 없이 단매에 요정렬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다.

본사기자 서희

미국은 공화국의 로케트발사훈련을 함부로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가 성명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가 7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은 공화국의 로케트발사훈련을 함부로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성명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평화를 총대로서수호하기 위한 정당당당하고 자위적인 군사행동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 무슨 《저강도도발》이요, 《유엔안보리사회결의의 위반》이요 하는 당치않은 꾀변을 늘어놓으면서 비밀하게 놀아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공화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핵잠수함을 비롯한 첨단핵전장장비들을 끌어들여 강도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

를 전쟁점점으로 몰아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 세상에 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을 벌리는데대해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었을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저들의 침략전쟁행위에대해서는 《방어적》이며 《년례적》이라고 정당화하고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훈련에대해서는 《도발》이라고 양말을 부리는것은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미국의 과립치세를 그대로 보여줄뿐이라고 밝혔다.

전체 재중조선경제인들은 공화국의 정당당당한 자위적조치를 적극 지지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군데안에까지 만연된 녀성들에 대한 성폭행과 녀성들과 어린이유괴 및 인신매사견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빈민들의 비참한 처지 등은 인권유린으로 악명높은 미국사회의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반레로》의 간판을 내걸고 참혹한 인권

제반 사실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말살국인 미국이야말로 인권피고석에서 하야 범죄국가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마치 《인권재판관》이라고 되는듯이 주 제მ게 해마다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만들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사대질하는가 하면 인권존중의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도 같은 험담을 늘어놓고있는것이야말로 까마귀가 백로를 흉보는것과 같은 가소로운것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남을 걸고들기 전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미국내와 세계도처에서 감행한 저들의 피비린내나는 인간살륙만행, 인권유린만행부터 역사앞에, 인류앞에 속죄해야 마땅하다.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나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 대한 세계의 일치한 평가이다.

정확준

요즘 어딜 가나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해 《위반》과 《도발》을 운운하는 미국의 강도적치사를 두고 분노하고있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며칠전 메아리사격관에 취재갔을 때였다. 매년 총을 쏘 때마다 백발백중하는 한 사격에호가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가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명중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과녁을 정확히 겨

누면 됩니다. 저 목표판이

철천지원수 미국놈의 렬가슴이라고 생각하니 저절로 명중이 됩니다. 우리의 증오의 이 과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미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증오의 감정이 그대로 어려있지 않은가.

1866년 《서면》호사건으로 조선에 대한 괴물은 침략력사의 첫시작을 뽐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괴출, 하나의 문화, 하나의 강도로 이어진 조선을 돌로 갈라놓은것도 또라라 지난 수십년간 공화국에 대한 비인간적인 제재와 야만적인 봉쇄로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해온 자제이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머

증오의 과녁

미국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증오의 과녁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누구나 그러한 분노의 마음으로 탄알을 채우고 방어쇠를 당기고 있다.

명중의 비결은 사격장의 과녁을 미국놈으로 보는데 있다. 공화국의 어느 사격장에 가보나 군인들과 노동적위곤대원들,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터뜨리는 말이고 그들의 뇌리에 박힌 《공식》이다. 그 증오의 감정으로 일찌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며 위대한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였고 그 증오의 감정을 안고 《100년이 걸려도 조선은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지껄이던 미국의면전에서 복구건설의 노래

더욱 불타오른다.

제 재를 가하겠으면 가하라.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반미대전으로.

세기를 이어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이 증오와 멸적의 감정은 지금 활화산처럼 무성게 분출하고있다.

미국이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력사적인 죄악들을 뒤우치지 않고 지금처럼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착과 고립압살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증오의 과녁을 향한 천만군민의 복수의 방아쇠는 당겨질것이며 그 탄알은 100% 명중될것이다. 그때에는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수도 없다.

김연희



미군핵잠수함의 부산입항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미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함선집단 투입, 남조선의 3개 항에 동시 입항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미국이 《독수리》북침합동군사연습에 미해군함선들을 투입하였다.

미군함선집단이 8일 조선동, 서, 남해의 3개 항에 동시에 쓸어들었다.

이지스유도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와 이지스구축함 《라센》호가 경기도의 평택항에 기어들었다.

한편 미사일순양함 《레이크 에리》호는 전라남도 목포항에, 이지스구축함 《하워드》호는 남조선강원도 동해항에 닻을 내렸다.

미해군함선들은 《토마호크》미사일, 《SM-3》, 《SM-2》대공미사일, 대잠수함로케트 등 타격수단들을 탑재하고있다.

이 함선집단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노린 대규모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여 대잠수함훈련 및 해상공방전 등 해상종합훈련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미해군의 타격집단이 여러 항구로 동시에 기어든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3일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이어 해상타격무력이 전례없는 규모로 기어든 사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 보이고있다.

본사기자

《나에게는 내 아이들이 퍼부석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1963년 8월 미국의 이름있는 인권활동가였던 킵카스가 《위싱턴행진》이라고 불려온 행사에서 한 말이다.

그때로부터 5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이라는 수식스러운 오명으로 세상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간판아래서 지금 미국의 절대다수 군로대중은 최악의 인권상황에서 허덕이고있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을 비롯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레오감시》라는 미명하에 미국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천문학적규모의 개인사생활정보를 손전화기와 인터넷을 통하여 비법적으로 감시, 탈취하였다는것은 이제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정보기관들의 본을 따라

들인 회색자로 되고있는 현실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 《문명》이 낳은 또 하나의 사회화적미국이다.

미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걸췌하면 총기를 휘둘러대는데 대한 방비책으로 교원들에게 사격훈련을 주는 등 《학교의 무장화》가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펜실바니아

주 바틀러군의 교육위원회가 소학교를 포함하여 군안의 14개 학교들에 무장인원들을 배치하기로 한데 대해전하였다.

군로자들에게 있어서 기본 권리의 하나인 로동의 권리도 미국에서는 한가닥 꿈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올해 1월까지 실업자수가 1 020만명에 이르렀으며 전국적으로 약 600만명에 달하는 24살미만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밖에 밀려나 거리를 헤

매고있는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돈이 없으면 병이 나도 죽어야만 하는 반인민적인 보건제도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건강담보도 받지 못하고있다.

지난해 9월 17일에 발표된 미국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의로보험에 들지 못해 치료를 제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나라

주 바틀러군의 교육위원회가 소학교를 포함하여 군안의 14개 학교들에 무장인원들을 배치하기로 한데 대해전하였다.

군로자들에게 있어서 기본 권리의 하나인 로동의 권리도 미국에서는 한가닥 꿈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올해 1월까지 실업자수가 1 020만명에 이르렀으며 전국적으로 약 600만명에 달하는 24살미만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밖에 밀려나 거리를 헤

로 받지 못한 주민들의 수는 약 4 800만명을 헤아렸다.

미국에서는 피부색과 민족별, 성별, 나이에 따르는 차별행위가 극심한것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만연되고있다.

단적인 실례로 《보스톤개관》 2013년 1~2월부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보통 200만명 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선거할 권리를 빼앗기고있다.

이밖에도 사회전반과 지어

유린행위를 동반한 국가테로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의 발길이 닿은 나라들마다에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미군무인기의 미사일공격으로 숨지고있으며 판다나모미해군기지감옥을 비롯한 곳곳의 감옥들에서는 《레로합의》로 감하였는 수감자들에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고문이 가해져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